115회 대공연 기획 인수인계서

김은별 민세원

1. 순서
2. 일정 관리

-전체일정, MT 등

1. 스탭 관리

-연습참여, 스탭 회의, 플랜, 밴드

1. 예산

-영수증모으기, 기획비 (MT, 감동후불제, 스탭벌금, 공금 등등)

1. 대관

-대관일자, 대관신청, 추첨관련, 극장관리

1. 팜포티

-팜플렛 : 사진촬영, 공연진한마디, 스폰 목록, 연습 사진, 극회소개 & 작품소개

-팜포티 디자인 & 인쇄

1. 기타 홍보

-소식지 (페이스북)

-선배님들 연락

-스폰 & 포스터부착

1. 공연 당일 매뉴얼
2. **순서**

-정식 연습 전 ~ 연습 초기

공연진 모집 & 페북 공지 ▶ 출범식 ▶ 작품 확정 & 작가 컨택 ▶ 예산관리

-본격 연습

스탭회의 주관 (+ 기획 플랜) ▶ 공연진 MT ▶ 팜포티 디자인 및 제작 ▶ 사진촬영 ▶ 대관 (2월초, 8월초) ▶ 팜포티 인쇄 ▶ 극회 선배님들 연락드리기 (공연일자 확정 후)

-개강

홍보 ▶ 스폰 & 포스터 부착 ▶ 공연

1. **일정관리**

공연진 전체의 일정과 공연의 전체적인 일정을 관리해야한다. 첫 스탭회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0주차~공연주차까지의 팀마다 진행상황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개괄적인 일정표를 짜면 좋다. 작성한 일정표를 지속적으로 체크하며 늦어지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시기를 놓치면 안되는 일들 (대관 신청&추첨, 팜포티 인쇄, 프로필 촬영)을 미리미리 파악해야 한다.

공연진이 모집 되고 나면 페이스북에 공연진 명단 공지와 함께 앞으로의 연습 일정에 대해서도 파악해 공지해야한다. 연습이 보통은 평일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되는지, 연습이 특별히 없는 날과 추가적으로 생기는 날, 철야나 무대설치 날짜 등도 모두 기획이 파악을 하고있어야 공지 할 수 있다.

연습이 시작되고 난 후 진행해야 하는 주요한 일들에는 출범식, 공연진 MT, 프로필 촬영 (공연진 전체가 가능해야) 등이 있다. 최대한 많은 공연진들이 가능한 날을 파악하기위해서 아마 잦은 투표를 해야만 할 것이다. (눈물…)

1. **스탭관리**

본격적인 연습이 시작되면 스탭 회의를 1주일에 한번씩, 이왕이면 모두가 참여 가능하고 적어도 각 팀에서 한 명 이상 참여할 수 있는 요일을 정한다. 스탭회의와 함께 매주 팀마다 플랜도 작성해오도록 하고 체크한다. (115회의 경우, 스탭들끼리 네이버 밴드를 만들어 매주 업로드. 회의 무단결석&지각과 플랜 업로드 지각에 벌금을 매겼음)

스탭 회의 전 날까지 기획팀 포함 각 팀이 모두 플랜을 올리도록 공지하고, 그 주 스탭 회의에 누가 참가하고 불참하는지도 파악하면 좋다. 스탭 회의 중에는 노트북이나 휴대폰을 활용하여 회의록을 작성해서 밴드 혹은 스탭 카톡방에 업로드해서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한다.

이번의 경우 스탭들의 연락처를 모두 파악하여 비상연락망을 만들어 공지하는 것도 좋았다. 비상연락망을 통해 팀마다 커뮤니케이션도 편리해지고, 이런식으로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놓으면 다음 대공연에서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스탭에게 기획이 이 전 공연진의 담당 스탭과 연락을 쉽게 이어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다. 또한 스탭회의날이 아니더라도 스탭들에게 연습 참여를 권장하고 기획 역시 자주 연습을 보러 오는 것이 좋다.

1. **예산**

처음에 팀별로 얼마까지 쓸 수 있는지 예산을 정해준다(예산안 참고). 그리고 어떤걸 구입구입할 때 기본적으로 기획에게 허락을 맡고 구입하고 영수증은 꼭 챙겨오는 것으로 한다(정확히 얼마인지 증거물이 필요, 그리고 나중에 극회 지원받을 때 영수증이 많이 있을수록 좋으니 꼭꼭 모아두어야 한다). 영수증을 받으면 팀-이름 식으로 써두는 것이 편하다. 또한 영수증을 받고 나서 돈을 기획이 보내주는 시스템이 편리하다.

엠티는 기획비를 남길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인당 3만5천원씩 걷고 방값 25만원 식비는 20만원이 넘지 않도록 해서 10만원정도 남겼다.

스탭 벌금은 플랜을 밴드에 스탭회의 전날까지 안올리면 5천원, 회의 지각 시 3천원으로 정했었는데 플랜 벌금은 철저히 걷었는데 지각 비 같은 경우는 걷은 적이 없다… 다들 5분씩은 늦으니까 엄격하게 적용하면 기획비에 보탤 수 있을 것이다.

감동후원금은 때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한데 일단 율전 공연은 합쳐서 20만원 정도 받았고 명륜 공연은 막공을 제외하고 20만원을 받았다. 명륜 막공 후원금과 선배님들이 뒤풀이 장소에서 모아서 주시는 후원금(?)이 정말 많다. 115회 대공연에서는 명륜 막공에서 감동후원금과 선배님들이 모아서 주신 돈이 합쳐서 130만원 정도 되었는데 그걸로 그날 뒤풀이비를 다 해결하고도 남았다.

공연 당일 날 캐스트와 스탭들 점심과 간식, 그리고 뒤풀이 비용은 다 기획비이다… 우리도 이걸 모르고 있었어서 매우 당황했었는데 어쨌든 뒤풀이비는 선배님들이 다 내주시거나 절반 정도 내주시기는 한다. (율전 막공 뒤풀이는 1차는 절반, 2차는 전액 내주시고 명륜 막공은 선배님들이 모아서 주신 현금으로 1,2차 다 해결했다.) 아예 공연진 전체에게 만원씩 걷자는 의견도 있기는 했는데 반대가 심해서 우리는 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 방법도 좋은 것 같으니까 공연진과 잘 상의해 보기를! 점심은 4만원 넘지 않도록 간식은 3만원 넘지 않도록 노력했다!

스폰도 정말 정말 중요하다. 우리는 율전 40 명륜 40을 목표로 잡아서 80만원을 벌었는 명율 각각 이틀씩 하루에 두 타임 잡아서 진행했다. 한 타임당 4명 정도가 적당하다. 율전은 하루는 후문 쪽 하루는 후문 건너편 길을 했고 명륜은 정문에서 올레사거리까지 돌았다. 거의 개강하자마자 도는 것이 좋다. (이번에는 연출님이 개강 전에도 하루 돌자고 하셔서 했었는데 닫은 가게들이 너무 많았다. 따라서 비추!)

기획이 원래 회장에게서 40만원 정도 받아서 대공연을 시작한다는데 115회 대공연은 기획 한명이 회장이어서 이런 절차 없이 그냥 공금카드로 다 해결했다. 회장과 상의 후 일정 금액을 받아서 시작하는게 좋을 것 같다.

기획=돈이라고 할 만큼 예산이 중요하다. 예산안 꼼꼼히 기록하는 걸 추천하고 적자가 안되도록!! (우리는 무려 3만원이나 남겼다 ><)

1. **대관**

율전은 일정 날짜에 일정 시간에 학관 행정실에 가서 신청하는 시스템인데 일단 날짜를 신청하고 그 날짜를 여러 동아리가 원하면 그날 오후에 가서 가위바위보로 정하는 그런 거지…같은 시스템이다. 그래서 다른 동아리 이름을 빌려서 예비로 더 신청해 놓는 것이 좋다. 무대 설치도 있고 원하는 날짜를 다른 동아리에서 가져간 경우 협상해서 바꾼다던가 해야 할 수도 있기 떄문이다. 115회 대공연 같은 경우에는 2개 동아리 (BEST, SMC)이름을 빌려서 성공적으로 대관을 했다. 이름 빌린걸 들키면 동아리가 경고 먹을 수도 있으니까 공연동아리 이름을 빌리는 것을 추천한다. 율전 소강당은 항상 열려 있고 널널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것은 없다.

명륜은 신청서를 이메일로 제출하는 방식이다.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대관에 대한 공지가 뜨면 신청서 다운받아서 제출하고 대관 추첨날짜에 가서 원하는 날짜를 말하면 된다. 명륜 대관도 동아리 이름을 빌리는 것을 추천한다. 명륜대관은 율전 보다는 수월한 편이지만 사용자체가 까다롭다. 원형극장 같은 경우는 키를 미리 받아두고 무대설치 하기 전에 무대 증거 사진도 찍어두어야 한다 (115회 때 무대 철거 후에도 우리가 하지 않은 타카랑 끈끈이 때문에 트집 잡혔었다…). 그리고 학생지원 팀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철야가 안된다.

1. **팜포티**

기획이나 공연진 중 누군가 일러스트레이션을 할 줄 알고 디자인에 감각이 있다면 직접 만들어도 좋지만, 그게 아니라면 외주제작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번에는 스탭의 사촌분께 디자인을 맡겨 좀 저렴하게 디자인이 완료 되었다. 팜포티의 경우 컨셉 논의도 오래 걸리고, 디자인 확정과 인쇄가 빠르게 확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작품이 정해지기 전후로 주위 사람들 위주로 디자인작업을 맡을 분을 미리 섭외해야 하고, 연출님과 디자이너분과 포스터 디자인 확정을 빠르게 지어야 한다.

포스터 디자인과 함께 팜플렛도 전체적인 틀을 미리 디자인이 진행되어야 한다. 모든 공연진의 사진과 한마디씩이 실려야 하므로, 프로필 촬영스탭&촬영날짜 섭외를 미리미리 진행하고 공연진한마디도 정리해 디자이너분에게 전달해드린다. 그 외에도 들어가야할 극회소개 & 작품소개 & 연습사진 & 연보표도 디자이너에게 전달해야한다. 스폰 목록을 제외한 팜플렛의 디자인도 미리 완료시키고 테스트용으로 출력해서 확인작업까지 끝나면 개강후 스폰목록만 추가해서 출력하면 여유롭게 받을 수 있다.

이번에는 디자인은 나름대로 빠르게 마무리 지었으나 확인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생겨 포스터, 팜플렛 출력과 배송이 급박하게 이루어졌다. 티켓도 미리미리 출력해서 개강 직후 홍보에 활용을 많이 하면 좋을 듯 하다.

1. **기타홍보**

이번 공연 연습 초반에 연출님의 바람은 팜포티출력 & 페이스북 비공개 ‘성균극회’ 페이지에 정기소식지 업로드 & 홍보영상 제작 이었으나, 영상 제작은 계획은 있었으나 사정상 하지 못 했다.

팜플렛, 포스터는 고정적으로 인쇄하고 티켓은 선택 사항이라고 할 수 있으나 티켓도 은근히 홍보효과가 괜찮아서 출력을 추천한다. 페이스북 정기소식지는 1~2주 간격으로 6차까지 업로드 했고, 선배님들 포함 극회인들에게 연습참여 장려 & 공연홍보에 효과적이었던 것 같다. 자주 연습참여해서 사진을 찍어오거나 공연진들에게 사진을 받아서 그 주에 방문한 극회인들의 이름을 실어서 소식지를 만들고 연습일정과 함께 공지했다.

선배님들에게는 총 3번 연락을 돌렸다. 설날에 안부인사 겸 대공연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드리는 1차 문자, 대공연 공연 날짜가 확정된 후 2차 문자, 그리고 3차 연락은 율전 공연 전날에 다소 급하게 전화로 드렸었다. 3차 연락은 율전 첫공 1주일 전 정도가 적당할 것 같다. 그리고 전화는 기획이 절대 다 돌리지 못한다. 스탭들끼리 분담하면 금방 끝나니까 꼭 분담해서 해라. 문자는 (<http://www.ppurio.com/mgr/index.qri>) 이 사이트를 이용해서 단체 문자를 뿌려라. 회장에게 극회 전체 연락처가 있을 것이다 .

포스터 부착은 명륜 율전 둘다 각 건물 안내데스크에 여쭤보고 확인 도장을 받고 부착해야지 떼가지 않으신다. 공연 며칠 전에 2-3명이 돌아다니면서 붙이면 적당하다. (스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예산에 적었으니 생략)

1. **공연당일 매뉴얼**

공연전에 공연 날 모든 공연진의 스케쥴표를 작성해서 공지하고, 당일에도 시간마다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체크한다. 팀마다 콜타임을 정하고 금일 공연에 참여하는 스탭인원을 미리 파악해서 점심&저녁 메뉴를 주문해놓고 공연 이후 뒷풀이 자리도 모두 예약하면 좋다. 공연 당일 기획은 공연진 밥을 챙겨주는게 가장 우선이고, 공연 전에는 발자국 설치, 기획 부스 정리와 감동후원금, 전지 (공연진에게 한마디) 등의 관리를 한다.

공연 10분 전부터는 관객 입장을 시키고 공연이 시작되면 기획 부스를 지키며 중도 입장을 관리하고, 공연이 끝나면 관객분들에게 퇴장 안내 이후 기념사진 촬영을 해드리면 된다. 막공일 경우, 케이크를 준비하고 일반 관객 -> 극회인 -> 공연진전체 -> 기획팀 사진촬영 이후 선배님들과 캐스트들 먼저 뒷풀이 장소로 안내해야 한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57기 김은별(010-3766-8445) 56기 민세원(010-4788-2165)에게 연락해보기를..화아팅!!